

신앙인들의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영적 웰빙 및 주관적 웰빙

전 은 식
삼육대학교
상담교육학과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진 신앙인의 종교지향, 영적 웰빙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앙인 317명이었으며, 그들은 연령은 만 20세에서 81세($M=52.00$, $SD=11.16$)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I/E-R 종교지향척도, 종교적 원리주의척도, 영적웰빙척도, 정서빈도검사, 삶의 만족척도 및 주관적 행복척도이다. 분석 결과, 신앙인의 종교지향은 영적 웰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주관적 웰빙과도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종교지향은 영적 웰빙은 물론 주관적 웰빙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존적 웰빙 중에 의미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종교적 원리주의는 영적 웰빙뿐 아니라 주관적 행복과도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 회귀분석은 종교적 원리주의에서 내적 종교지향 요소를 제거하면 부정정서와는 정적으로 주관적 행복과는 부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주관적 웰빙과 관계하는 영적 웰빙은 충족감이었는데, 종교적 웰빙에서 충족감 부분을 제외하면 삶의 만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영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에는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집단에서만 종교지향 수준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영적 웰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반대로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한 집단에서만 종교지향 수준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런 결과는 종교성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영성, 웰빙, 행복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이다(통계청, 2010).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문화관광부, 1997).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성장하면서 친구나 가족들을 통해 종교적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Wilber(1997)는 영성이나 종교성이 인간 의식의 기본 구조이고 한 개인에 삶에 깊이 관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심리학회에는 종교와 관련된 심리학 분과(Division 36)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에서 종교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APA, 1992).

오래 전부터 인간의 종교성이 적응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Frankl, 1967). 종교성(religiosity)이나 영성(spirituality)이 개인의 적응이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 내려졌다고 볼 수 없지만, 일찍이 여러 연구들(Batson, Schoenrade, & Ventis, 1993; Donahue, 1985; Kirkpatrick, 1997; Pargament, 1977)에서 종교성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tters 등(2008)이 미국인 전집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종교 유무가 기분장애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종교 예식이나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신장애 때문에 치료받는 비율이 낮았다.

개인의 적응 혹은 기능 차원의 심리적 웰빙을 중심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들(Hathaway & Pargament, 1990; Lea, 1982; Peterson & Roy, 1985; Ross, 1995)에서는 종교성이 우울이나 불안감을 줄여주는 완충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신념이 통제감과 낙천성을 증진시

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심리적 웰빙을 도모한다는 주장이 있다(Dull & Skokan, 1995). 종교가 심리적 건강이나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주장(Ryan, Rigby, & King, 1993)이 있지만, 종교성이 정신병리적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었으며(Rosenstiel & Keefe, 1983),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병리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Andreasen, 1972; Bergin, 1983).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종교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단언할 수 없게 만든다.

메타분석 연구(Bergin, 1983)에서도 종교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 결과 종교지향 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 적응적인 집단과 부적응적인 집단으로 양분되었다. 24개의 연구들 중에 1/4의 연구에서 종교성이 정신건강과 부적으로, 1/2의 연구에서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그 연구들에서 나타난 정신건강에 대한 종교성의 효과 크기는 -.32에서 +.82까지였다. 이 메타분석 연구는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종교성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 일찍이 Andreason(1972)은 종교를 양날을 가진 칼로서 표현하면서 강한 종교지향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역으로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도 있었다(Witter, Stock, Okum, & Haring, 1985). Witter 등의 연구는 56개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상관계수가 .14에서 .25까지였음을 알려준다. 이런 수치는 주

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성의 설명력이 2%에서 6% 사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들에서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이 공변하는 부분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측정의 문제 혹은 두 개념의 복잡성 때문일 수 있다(Chamberlain & Zike, 1989). 두 변인의 관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조절변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를 수 있다(Veenhoven, 1994). 종교성의 강도, 즉 종교에 대한 몰입 수준이나 헌신의 정도가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변인일 수 있으며(Ellison, 1991), 사회적 이익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 즉 내적인 종교지향만이 주관적 웰빙과 상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Argyle, 2001; Argyle & Hills, 2000). 또한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도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다(Piedmont & Moberg, 2003).

종교성이 인간의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 Idler(1987)는 세 가지 가설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신앙을 가짐으로 생기는 종교적 사회망으로부터의 지원이 인간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사회적 응집성 가설(social cohesiveness hypothesis)이다. 두 번째는 종교를 믿는 신앙이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운명론적 관점과 낙관적 관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유지시킨다는 일관성 가설(coherence hypothesis)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신앙이 고통이나 고난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희석시킴으로써 정신건강과 건강과 웰빙을 도모한다는 신정론적 가설(theodicy hypothesis)이다.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종교성에 관한 Idler의 가설

들이 모두 검증된 것이 아니며 본 연구가 그 가설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가설들은 종교성이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Peterson과 Roy(1985)도 종교적 신앙이 주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이나 부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은 종교적 신앙이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의미감과 충족감을 더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고 보았다. 종교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해결 자원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체감을 가지게 하여 미래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낙담하게 만들거나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건과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도 있다(Pollner, 1989).

종교적 신앙이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종교성과 정신건강 간에 부적 관계가 나타난 연구들이 그 예이다(Bergin, 1983).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종교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암시하는 것인데, 어떤 학자들(Hunsberger, Alisat, Pancer, & Pratt, 1996)은 융통성 없고 편견을 생기게 하는 절대적 종교성이 사회적인 부적응을 양산하고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합리적 행동치료의 창시자 Ellis(2000)도 종교성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절대적이고 자기패배적 종교성이 정신건강을 해치고 웰빙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일찍이 성격심리학자 Allport(1954, p. 444)도 종교성에는 편견을 없애는 요소도 있지만 편견을 생기게 하는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Altemeyer와 Hunsberger(1992)는 종교에서의 편견을 ‘종교적 원리주의’라고 보았다. 이들은 종교적 원리주의를 인류와 신성에 관해 원리적이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교리를 본질적이고 조금도 틀림없는 확실한 진리로 여기는 것이며, 종교적 원리주의자는 그런 진리가 악의 힘에 근본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자들도 융통성의 부재나 편견과 관련된 종교적 개념인 원리주의(Fundamentalism)를 정신 건강이나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정성진, Ji, 김신섭 및 서경현(2010)은 종교적 원리주의를 Hunsberger 등(1996)과 Ellis(2000)이 부적응적 종교성으로 가정한 것뿐 아니라 다른 가설(Idler, 1987; Peterson & Roy, 1985; Pollner, 1989)에서 설명하는 종교의 심리적 효과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정성진 등과 같이 본 연구자들도 종교적 원리주의가 종교성과 웰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런데 정성진 등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원리주의가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효과를 보였는데, 종교지향이 강한 경우 원리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았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종교를 믿으면서 융통성이 없는 종교적 원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개인의 웰빙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가정과는 다른 연구 결과를 얻은 것이다. 종교적 원리주의가

타인 혹은 타종교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한 관점이나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회적 응집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원리주의와 웰빙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성진 등(2010)의 연구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특히 그 연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종교성이 한국 신앙인들의 종교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1979년과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일명 에코세대와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베이비부머의 58.3%가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보고하였지만 에코세대의 경우 50.7%만이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를 느꼈다.

개인의 종교성은 종교를 지향하는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Allport & Ross, 1967). 그런데 인간의 종교 행동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된다(Donahue, 1985). Allport(1950)도 종교성을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진심으로 경건한(devout)” 신앙인과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institutional)” 신앙인으로 나누어 기술한바 있다. 내·외적 종교지향 말고도 추구적(quest) 종교지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Batson & Ventis, 1982), 일반적으로 종교지향은 내적 종교지향과 외적 종교지향 두 가지 요인구조를 기초로 연구되어 왔다(Altemeyer & Hunsberger, 1992). 내적인 종교지향은 종교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다른 목적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여 자체가 이유가 되어 신앙을 하는 것이고, 외적인 종교지향은 내적 종교지향보다 동기의 섬세함은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실용성에 근간을 두고 종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Allport & Ross, 1967). 연구들에서 나타난 외적 종교지향의 구체적인 목적은 개인적 안락이나 사회적 이득이다(Kirkpatrick, 1989).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외적 종교지향이 내적 종교지향보다 개인의 웰빙에 많이 기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종교성과 관련하여 검증할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학력, 소득,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객관적 변인들의 경우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이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Diener, 1984). 인간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주관적 웰빙은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과 정서적 요소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삶의 만족은 인지적 요인으로 개인이 설정한 자신의 바람, 기대, 희망에 대한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사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다(Shin, & Johnson, 1978).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요인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경험하지만 긍정정서를 부정정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해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Watson & Clark, 1984). 따라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정서를

더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정호, 2007;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서경현, 양승애, 2010; 정성진 외, 2010)에서처럼 주관적 행복, 즉 행복감을 추가하여 삶에 만족하고 긍정정서를 더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여 행복감을 더 느낄 때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는 물론 영적 웰빙 간의 관계도 검증하고자 한다. 웰빙을 스트레스의 반대개념으로 볼 때(김정호, 2007), 일련의 선행연구(서경현, 전경구, 2004; 전경구, 정봉도, 김영환, 2000)에서 영적 웰빙이 생활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여 인간의 웰빙에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통해 영적 웰빙 중에 실존적 웰빙의 하위변인인 의미감과 충족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간의 웰빙에 관여한다는 Peterson과 Roy(1985)의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정성진 외, 2010; 황혜리, 서경현, 김지윤, 2011)에서 영적 웰빙 중에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이 웰빙과 관계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은 물론 주관적 웰빙과 관련하여 영적 웰빙을 다각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지향과 영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성인들의 종교지향, 영적 웰빙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종교지향과 웰빙 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 하에 연구자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신앙인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는 영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과 관계가 있다. 둘째, 신앙인의 종교지향 중에 특정 하위요인이나 종교적 원리주의로 주관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신앙인의 영적 웰빙 중에 실존적 웰빙만이 주관적 웰빙과 관계가 있다. 넷째, 신앙인의 종교지향과 영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런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종교성이 인간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방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 317명(남성 72명, 여성 2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앙인만 응답할 것을 당부하고 설문하여 400여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지만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자료와 불완전한 자료들이 있어 그것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17명으로 얻은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20세에서 81세($M=52.00$, $SD=11.16$)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 중에 20대와 30대가 39명(12.3%), 40대 63명(19.9%), 50대 147명(46.4%), 60대 이상이 68명(21.5%)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는 개신교가 215명(67.8%)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54명(17.0%), 천주교 35명(11.0%), 기타 종교 13명(4.2%) 순이었다.

신앙을 유지해 온 기간은 1년부터 63년($M=25.26$, $SD=15.04$)이었으며, 부모의 영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의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도 79명(24.9%)이나 되었다. 그리고 21.5%(68명)의 참여자가 다른 종교에서 현재 믿고 있는 종교로 개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여한 신앙인들이 예배나 미사 혹은 예불 등과 같은 종교집회 혹은 종교예식에 참여하는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44명(13.9%), 한 달에 한두 번이 28명(8.8%), 일주일에 한 번이 84명(26.5%),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133명(42.0%)이었으며, 특별히 종교예식이나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28명(8.8%)이었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 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조사 도구

종교지향: 본 연구에 참여한 신앙인들이 종교를 지향하는 정도는 Gorsuch와 Mcpherson(1989)이 개정한 내·외적 종교지향 척도(I/E-R: Intrinsic/Extrinsic-Revised)로 측정하였다. Gorsuch와 Venable(1983)이 모든 연령대에서의 종교지향을 측정하려고 고안한 도구를 개정한 것으로 이 척도는 내적 종교지향(I: 8문항)과 외적 종교지향(E: 6문항)을 측정한다. 이론적으로 외적 종교지향에는 사회적 종교지향(E_s : 3문항)과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종교지향(E_p : 3문항)이 포함된다. Gorsuch와 Mcpherson의 개정 작업의 요인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I, E_s , E_p)으로 구분되었다. 본

래 척도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7점(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종교지향 문항 중에 세 문항은 역환산 문항이다. 사용한 한국어 척도는 정성진, Ji, 김신섭 및 서경현(2010)이 번안한 것이다. 척도개발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I의 경우 .83으로 양호했지만, Es와 Ep는 각각 .58과 .57로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종교지향은 .82이었고, Es와 Ep가 .68와 .77이었으며 외적 종교지향은 .69로 양호한 편이었다. 전체 종교지향의 내적 일치도는 .80을 나타냈다.

종교적 원리주의: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은 Altmeyer와 Hunsberger(1992)가 개발한 종교적 원리주의 척도(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를 정성진 등(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종교적 생각이나 관념을 원리주의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며, 그것을 진리로 믿는 정도를 5점으로 평정하는 20 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1 = 강하게 반대한다 ~ 7 = 강하게 동의한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10문항은 종교적 원리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역환산 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예로는 “신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지키면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지침을 주었다”와 “각기 다른 종교와 철학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 모두 동등하게 옳다고 할 수 있다(역환산 문항)”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20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영적 웰빙: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의 영적 웰빙은 Ellison(1983)의 영적 웰빙 척도의 한국판 영적 웰빙 척도(전검구 외, 2000)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종교적 웰빙(10문항)과 실존적 웰빙(10문항)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영적 웰빙 척도는 기독교 외의 종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God’라는 단어를 ‘신(부처)’라고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Ellison(1983)의 연구와 서경현과 전검구(2004)의 연구 등을 포함한 선행연구들에서 실존적 웰빙은 두 가지 요인(충족감: 5문항/의미감: 5문항)으로 나뉘었다. Ellison의 척도는 6점으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경현과 전검구(2004)의 연구에서처럼 7점으로 수정해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종교적 웰빙에서 .79, 실존적 웰빙은 .73(충족감 .70, 의미감 .69)이었으며, 전체 영적 웰빙은 .80이었다.

부정/긍정 정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 정서와 긍정정서는 조명환과 차경호(1998)의 정서 빈도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지난 1개월 동안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7점(1 = 전혀 없었다 ~ 7 = 항상 그랬다)으로 평정하도록 한다. 각각 4가지의 부정 정서와 긍정정서를 평정하는데 본래 이 검사는 부정 정서로 공포, 화남, 슬픔 및 죄의식을, 긍정 정서로 애정, 기쁨, 만족감 및 자부심을 포함하였는데, 김정호(2007)의 연구에서 공포를 불안으로, 슬픔을 우울로, 애정은 친밀감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부정 정서 .75, 긍정 정서 .82였다.

삶의 만족: 신앙인들이 삶에 만족하는 수준은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김정호(2007)가 수정하고 보완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1 = 매우 반대한다 ~ 7 = 매우 찬성한다)으로 평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주관적 행복: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김정호(2007)가 변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피검자 자신의 상태와 관련하여 진술되어 있는 4문항을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수준은 .73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Pearson 적률상관분석,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 및 단순주효과 분석을 위한 변량분석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종교지향 및 종교적 원리주의와 두 변인의 교차 항을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변인의 점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한 값으로 교차 항을 만들었다.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는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은 상위와 하위 25%로 나누었으며, 중

교지향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은 중앙치로 나누었다. 주관적 웰빙 점수는 긍정정서, 삶의 만족을 주관적 행복 점수를 더하고 부정정서 점수는 뺀 값이다.

결 과

신앙인들의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영적 웰빙 및 주관적 웰빙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의 종교지향이나 종교적 원리주의가 영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분석 결과 신앙인들의 종교지향은 영적 웰빙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r=.51$, $p<.001$.

종교지향은 영적 웰빙 중에 종교적 웰빙($r=.53$, $p<.001$)은 물론 실존적 웰빙($r=.41$, $p<.001$)과 상관성이 있었다. 종교지향에서 내적 종교지향이 영적 웰빙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었는데, 두 변인은 36%가량의 변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종교지향도 영적 웰빙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으나($r=.12$, $p<.05$), 외적 종교지향 중에서도 사회적 종교지향은 영적 웰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적 종교지향은 의미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4$, $p<.05$. 또한 자기이의 종교지향은 종교적 웰빙은 물론 실존적 웰빙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의미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신앙인들의 종교지향은 주관적 웰빙과도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r=.24$, $p<.001$. 종교지향은 삶의 만족($r=.21$, $p<.001$)이나 주관적 행복($r=.26$,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정서($r=-.12, p<.05$)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종교지향 중에 내적 종교지향만이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r=.25, p<.001$), 외적 종교지향 중에 자기이의 추구 종교지향은 주관적 웰빙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r=.19, p<.001$. 전반적으로 종교지향은 부정정서나 긍정정서보다는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행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적으로 종교를 추구하는 성향, 즉 종교적 원리주의는 영적 웰빙과는 정적으로 관계가 있었지만($r=.51, p<.001$), 주관적 웰빙과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앙인들의 종교적 원리주의는 종교적 웰빙은 물론 실존적 웰빙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종교적 원리주의는 주관적 웰빙 변인 중에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15, p<.01$.

한편, 종교적 원리주의는 종교지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64, p<.001$. 종교적 원리주의는 특히 내적 종교지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외적 종교지향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r=.18, p<.01$), 외적 종교지향의 하위요인 중에 사회적 종교지향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r=-.01, n.s$.

이 연구에서는 신앙인들의 영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도 분석하였다(표 2). 상관분석에서 영적 웰빙은 부정정서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r=-.24, p<.001$. 영적 웰빙의 모든 하위요인이 부정정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영적 웰빙은 긍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r=.15, p<.01$), 그런 관계는 실존적 웰빙에서만 확인되었다. 영적 웰빙은 삶의 만족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처

표 1. 종교지향 및 종교적 원리주의와 영적 및 주관적 웰빙 요인 간의 상관행렬($N=317$)

변인	내적 종교지향	사회적 종교지향	자기이의 종교지향	외적 종교지향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M	SD
종교적 웰빙	.60***	.02	.23***	.16**	.53***	.51***	50.55	12.00
충족감	.42***	.03	.27***	.20***	.42***	.33***	26.91	5.74
의미감	.39***	-.14*	.01	-.09	.26***	.37***	23.23	6.83
실존적 웰빙	.50***	-.08	.16**	.06	.41***	.43***	50.13	10.20
영적 웰빙	.59***	-.03	.21***	.12*	.51***	.51***	100.68	20.80
부정정서	-.15**	.02	-.01	.01	-.12*	-.03	12.94	5.10
긍정정서	.12*	-.05	.10	.03	.11	.05	20.08	4.74
삶의 만족	.17**	.01	.25***	.18**	.21***	.02	24.02	6.79
주관적 행복	.31***	-.10	.17**	.05	.26***	.15**	20.87	4.71
주관적 웰빙	.25***	-.05	.19***	.10	.24***	.08	52.02	15.51
내적 종교지향		.01	.45***	.30***	.91***	.73***		
사회적 종교지향			.14*	.75***	.33***	-.01		
자기이의 종교지향				.77***	.69***	.28***		
외적 종교지향					.68***	.18**		
종교지향						.64***		
M	40.50	7.18	16.06	23.24	63.74	87.19		
SD	10.72	4.02	4.16	6.18	13.90	19.36		

* $p<.05$, ** $p<.01$, *** $p<.001$.

럼 보였으나, 실존적 웰빙 특히 충족감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2, p<.001$. 한편 영적 웰빙은 주관적 행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r=.28, p<.001$), 영적 웰빙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그런 관계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 웰빙의 모든 하위요인이 주관적 웰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설명력

주관적 웰빙과 그 하위요인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유의한 예언변인이고, 그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적 종교지향과 두 개의 외적 종교지향 하위요인, 그리고 종교적 원리주의를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3). 표 3은 주관적 웰빙 전체를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과 각각의 주관적 웰빙 하위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들의 결과를 한 곳에 요약한 것이다.

분석결과, 내적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종교지향의 주관적 웰빙에 6.4%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다, $\beta=.42, p<.001$. 그런데 내적 종교지향에 더해 종교적 원리주의가 주관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beta=-.23, p<.01$. 이는 내적 종교지향을 제외한 종교적 원리주의는 개인의

분석결과, 내적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종교지향의 주관적 웰빙에 6.4%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다, $\beta=.42, p<.001$. 그런데 내적 종교지향에 더해 종교적 원리주의가 주관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beta=-.23, p<.01$. 이는 내적 종교지향을 제외한 종교적 원리주의는 개인의

표 2. 영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 요인 간의 상관행렬(N=317)

변인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충족감	의미감	영적 웰빙
부정정서	-.21***	-.25***	-.21***	-.20***	-.24***
긍정정서	.11	.17**	.17**	.12*	.15**
삶의 만족	.03	.15**	.22***	.04	.09
주관적 행복	.20***	.33***	.33***	.22***	.28***
주관적 웰빙	.18**	.30***	.32***	.19***	.25***

* $p<.05$, ** $p<.01$, *** $p<.001$.

표 3.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 요인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317)

준거변인	예언변인	β	t	ΔR	F
주관적 웰빙	내적 종교지향	.42	5.32***	.064	15.23***
	종교적 원리주의	-.23	-2.87**	.024	
부정 정서	내적 종교지향	-.28	-3.41***	.024	6.00**
	종교적 원리주의	.16	2.06*	.013	
긍정 정서	내적 종교지향	.12	2.16*	.015	4.66*
삶의 만족	개인의 종교지향	.25	4.57***	.062	20.91***
주관적 행복	내적 종교지향	.43	5.49***	.094	18.76***
	종교적 원리주의	-.17	-2.14*	.013	

* $p<.05$, ** $p<.01$, *** $p<.001$.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웰빙 요인 중에 부정 정서와 주관적 행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투입한 예언변인 중에 내적 종교지향이 부정 정서($\beta = -.28, p < .001$)와 주관적 행복($\beta = .43, p < .001$)의 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적 원리주의는 내적 종교지향에 더해 부정 정서와 주관적 행복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종교적 원리주의에서 내적 종교지향을 제외하면 부정 정서와 정적으로, 주관적 행복과 부적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 정서에 대해서는 내적 종교지향만이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 = .12, p < .05$. 그리고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개인이익 종교지향만이 예언변인이었다, $\beta = .25, p < .001$.

주관적 웰빙에 대한 영적 웰빙의 설명력

주관적 웰빙과 그 하위요인에 대한 영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이 유의한 예언변인이고, 그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적 웰빙과 충족감과 의미감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는 주관적 웰빙 전체를 준거변

인으로 한 분석과 각각의 주관적 웰빙 하위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들의 결과를 한 곳에 요약한 것이다.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충족감이 주관적 웰빙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는 나타났다, $\beta = .32, p < .001$. 상관분석에서는 실존적 웰빙의 의미감이나 종교적 웰빙도 주관적 웰빙과 정적 상관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요인들에서 충족감의 특성을 제외하면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긍정정서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충족감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beta = .17, p < .01$. 주관적 행복의 경우 충족감이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나 ($\beta = .29, p < .001$), 의미감도 추가적으로 예언하는 부분이 있었다, $\beta = .12, p < .05$.

한편 삶의 만족을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는 특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분석에서도 영적 웰빙 요인 중 충족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29, p < .001$), 그것에 더해 종교적 웰빙은 삶의 만족을 부적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 웰빙은 부정정서를 예언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웰빙 요인이었다, $\beta = -.63, p < .001$.

표 4. 주관적 웰빙에 대한 영적 웰빙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317)

준거변인	예언변인	β	t	ΔR	F
주관적 웰빙	충족감	.32	5.91***	.100	34.92***
부정 정서	종교적 웰빙	-.63	-3.84***	.045	14.75***
긍정 정서	충족감	.17	3.03**	.028	9.16**
삶의 만족	충족감	.31	4.58***	.046	10.60***
	종교적 웰빙	-.16	-2.38**	.017	
주관적 행복	충족감	.29	5.30***	.111	22.35***
	의미감	.12	2.22*	.014	

* $p < .05$, ** $p < .01$, *** $p < .001$.

영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역할

신앙인들의 종교지향과 웰빙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다시 말해, 독립변인(A)인 종교지향이 종속변인(C)인 영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절변인(B)인 종교적 원리주의가 독립변인과 작용하여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좌우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먼저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를 차례로 투입한 후에 이 둘 간의 교차 항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인 영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종교지향 및 종교적 원리주의와 두 변인의 교차 항을 함께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 항은 두 변인의 점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한 것으로 구한 값을 투입하였다.

표 5에는 영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두 가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영적 웰빙을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앙인의 종교지향이 영적 웰빙을 25.9%정도 설명하고, 종교적 원리주의를 추

가하면 그 설명량이 5.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 p<.001$. 게다가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도 영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하여($\beta=.15, p<.01$) 종교지향과 영적 웰빙 간에서 조절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웰빙에 대한 분석에서도 종교지향은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beta=.24, p<.001$. 하지만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의 설명량은 5.8%로 영적 웰빙에 대한 설명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교지향에 더해 종교적 원리주의 설명량도 유의하였는데, 종교적 원리주의에서 종교지향을 제외한 부분은 주관적 웰빙을 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beta=-.16, p<.05$. 그리고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2 증가분이 주관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하여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beta=.15, p<.05$.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영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종교적 원리주의 상·하위 25%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한 집단에서는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영적 웰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F(1, 78)=3.07, ns$),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표 5. 영적 및 주관적 웰빙에 대한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189)

투입순서	준거변인: 영적 웰빙				준거변인: 주관적 웰빙			
	예언변인	β	F	R^2 증가분	예언변인	β	F	R^2 증가분
1	종교지향(A)	.51***	109.90***	.259	종교지향(A)	.24***	19.25***	.058
2	종교적 원리주의(B)	.31***	71.67***	.054	종교적 원리주의(B)	-.16*	11.30***	.009
3	A × B	.15**	52.28***	.021	A × B	.15*	9.78***	.019

* $p<.05$, ** $p<.01$, *** $p<.001$.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구한 것이고, 제시된 F값은 각 단계에서의 회귀모형 전체의 F값임.

집단에서는 종교지향 수준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영적 웰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72)=5.40$, $p<.05$.

주관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종교적 원리주의가 약한 집단에서는 종교지향 수준에 따라 주관적 웰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F(1, 72)=3.57$, $n.s$),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한 집단에서는 종교지향 수준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78)=7.07$,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앙인들의 종교지향, 종교적 원리주의, 영적 웰빙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종교지향과 영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원리주의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종교적 신앙을 가진 성인들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수준은 평정척도의 중간 값보다 높았다.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 척도 문항들의 중간 값의 합이 각각 56점과 80점인데 이 연구 참여자들이 평균 점수가 각각 63.74점과 87.19점으로 더 높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성진 등(2010)의 연구에서 종교적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수준이 낮았던 것이 연구의 타당도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의 시도와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정성진 외, 2010)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의 종교지향은 영적 웰빙 중에 신과의

관계에서의 경험하는 웰빙, 즉 종교적 웰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내적 종교지향이 외적 종교지향보다 영적 웰빙과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외적 종교지향 중에 사회적 종교지향은 영적 웰빙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적 영적 웰빙의 의미감과는 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인 이유로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결과이다. 정성진 등(2010)은 사회적 종교지향을 하는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를 통해 의미감이나 충족감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단순히 사회적 종교지향을 하게 되면 의미감이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일방향적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 종교에서 세상과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전부터 같이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나 자신이 살아오던 환경에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종교적 환경 속에 머무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종교지향은 부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행복과는 정적 상관이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주관적 웰빙과는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냈지만 상관계수가 .24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 수치는 Witter 등(1985)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에 상관계수 구간 .14~.25안에 있는 것이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성진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종교성과 주관적 웰빙 간에 상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Inglenhart(1990)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젊은 세대의 특성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87.7%가 4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신앙인의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 간의 낮은 상관수준은 젊은 세대만의 특성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종교지향이 부정정서나 긍정정서보다는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행복과 상관이 있었던 것은 신앙인들의 종교지향이 일상에서의 느끼는 정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에 대한 인식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종교지향이 주관적 웰빙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설명한 Idler (1987)의 종교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응집성 가설에 따르면 정서적 지원이나 인지적 지원은 물론이고 더 실질적인 행동적 지원도 포함된 종교적 사회지원이 개인의 삶의 질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종교지향이 주관적 웰빙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연구(김혜숙, 최진호, 1997)에서는 종교적 모임의 참여수준이 한국인의 주관적 웰빙과 정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적 모임 참여나 그 안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은 사회적 종교지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종교적 모임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관계를 주목적으로 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성진 외, 2010).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웰빙이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6%정도의 변량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적 웰빙의 요인은 충족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상관분석에서는 종교적 웰빙이 삶의 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충족감에 더해 삶의 만족의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웰빙에서 충족감과 공유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삶의 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종교와 관련하여 만족감이 높을수록 내세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고 현세에 대한 삶을 덜 만족하게 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황혜리 등(2011)의 연구에서도 종교적 웰빙 전체는 심리적 웰빙과 정적으로 관계하였지만 종교적 웰빙에서 실존적 웰빙 요소를 제거하면 심리적 웰빙과 부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교적 웰빙에 심리적 혹은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종교적 웰빙이 부정정서를 예언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웰빙 요인으로 나타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단서를 제공하는데, 신앙인들의 경우 신과의 관계에서의 웰빙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원리주의가 Ellis(2000)가 경계했던 절대적이고 융통성 없는 종교성일 수 있고, Allport (1954)가 기술한 “종교에서의 편견”일 수 있는 채택한 변인이지만, 영적 웰빙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종교적 원리주의가 신과의 관계에서의 종교적 웰빙뿐 아니라 충족감과 의미감과 같은 실존적 웰빙과도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은 생

각해 보아야 할 결과이다. 게다가 종교적 원리주의는 주관적 행복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성진 외, 2010)에서도 종교적 원리주의는 삶의 만족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종교적 원리주의에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상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종교적 원리주의의 웰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종교적 원리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적 종교지향 요소 때문일 수 있다. 신앙인들의 종교적 원리주의는 내적 종교지향과 53%이상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적 종교지향 요소를 제외한 종교적 원리주의는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종교적 원리주의에서 내적 종교지향 요소를 제하면 부정정서와는 정적으로 주관적 행복과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이는 내적 종교지향의 긍정적 요소를 제외한 종교적 원리주의는 부정정서를 유발하거나 행복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상관에서는 종교적 원리주의의 부정적 효과가 가려져 있어 알 수 없지만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종교적 원리주의를 종교에서의 편견이라는 주장(Allport, 1954; Altemeyer & Hunsberger, 1992)에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종교적 원리주의에 영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많고 주관적 웰빙을 낮출 수 있는 압력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 가설들은 기반으로 융통성 없는 종교성 혹은 종교적 원리주의가 종교를 믿는 신앙

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종교적 원리주의가 영적 웰빙과 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원리주의적인 신앙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적 원리주의가 의미감이나 충족감과 같은 실존적 웰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성진 등(2010)의 연구에서도 웰빙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긍정적 측면이 발견되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종교단체의 현대화 혹은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말하는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런 결과는 종교 단체가 보수적인 태도 혹은 종교적 원리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신앙인들이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래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Allport와 Ross (1967)의 연구에서는 외적 종교지향을 하는 신앙인들에게서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성진 외, 2010)에서는 오히려 내적 종교지향을 추구하는 신앙이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강했다. 이런 결과는 종교지향에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인의 종교를 지향하는 방식과 내·외적 종교지향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국인의 종교지향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이미 연구에 의해 검증되기도 하였다(한내창, 2001).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 간의 관계는 물론 그런 종교성과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웰빙 간의 관계를 서양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실증적으로 면밀히 검증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영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에 종교지향과 종교적 원리주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신앙인들의 종교지향과 영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 그리고 종교적 원리주의 간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다. 종교지향과 웰빙 간의 관계에서 보자면 종교적 원리주의가 조절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강하면 영적 웰빙 수준이 높은데,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약해도 종교지향 수준만 높으면 영적 웰빙 수준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웰빙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종교적 원리주의에 신앙인들의 주관적 웰빙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지만 종교지향이 강하면 양호한 주관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성진의 연구(2010)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만큼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연구나 본 연구에서 모두 종교적 원리주의 수준은 높으면서 종교지향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정성진 등(2010)은 그 이유를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라는 것에 근거한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지향을 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종교적 원리주의가 강하면서 종교지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관한 연구들이 더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런

종교들이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온 것을 보면 종교에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종교가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Andreason, 1972; Ellis, 2000),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해 부정적일 수 있는 종교성을 탐구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한국의 성인 신앙인들을 완벽히 대표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둘째, 종교지향이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의 방향도 타당하지만 양방향 관계가 더 타당할 수 있어(김동기, 2007) 인과관계의 방향을 가정하고 결과를 논의한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단적인 종교적 원리주의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원리주의에 대한 인식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종교적 원리주의의 일반적인 정의인 현대적인 것에 대한 종교적 반발을 의미(Armstrong, 2001)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종교지향의 구성개념에 대부분의 선행연구처럼 내·외적 종교지향만을 포함시켜 연구하였지만, 추구적(quest) 종교지향도 실존적 의문에 대한 해결 의지와 변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반영하는데 이런 개념이 실증적으로 지지되었기 때문에(Burris & Jackson, 2000), 후속연구에서는 추구적 종교지향을 포함시켜 종교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동기 (2007).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47-365.
- 김혜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345.
- 김혜숙, 최진호 (1997).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41-60.
- 문화관광부 (1997). 청소년의 영혼과 종교세계 의식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서경현, 전점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333-350.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69-186.
- 서경현, 양승애 (2010).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애와 자존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53-671.
- 전점구, 정봉도, 김영환 (2000). 생활스트레스, 영적 안녕 및 우울간의 관계.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3, 311-325.
- 정성진, Ji, 김신섭, 서경현 (2010). 종교지향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대한 종교적 원리주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9-41.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예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내창 (2001).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193-215.
- 황해리, 서경현, 김지운 (2011).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 709-724.
- Allport, C. W. (1950).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Macmillan.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Altmeyer, B., &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 113-133.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American Psychologist*, 47, 1597-1611.
- Andreasen, N. J. C. (1972). The role of religion in depress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1, 153-166.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Argyle, M., & Hills, P. (2000). Religious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happiness and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0, 157-172.
- Armstrong, K. (2001). *The Battle for God: A History of Fundamentalism*. New York: Ballantine Books.
- Batson, C. D., & Ventis, W. L. (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on, C. D., Schoenrade, P., & Ventis, W. L. (1993).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in, A. E. (198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70-184.

- Burris, C. T., & Jackson, L. M. (2000). Social identity and the true believer: Responses to threatened self stereotypes among the intrinsically religiou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257-278.
- Chamberlain, K. & Zika, S. (1989). Religiosity, life memory,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411-420.
- Chatters, L. M., Bullard, K. M., Taylor, R. J., Wodward, A. T., Neighbors, H. W., & Jackson, J. S. (2008). Religious Participation and DSM-IV Disorders Among Older African American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n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6*, 957-96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nahue, M. J. (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400-419.
- Dull, V. T., & Skokan, L. A. (1995). A cognitive model of religion's influence on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51*, 49-64.
- Ellis, A. (2000). Can REBT be effectively used with people who have devout beliefs in God and relig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1*, 29-33.
- Ellison, C. 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80-99.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Frankl, V.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Gorsuch, R. L., & McPherson, S. E. (1989).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348-354.
- Gorsuch, R. L., & Venable, G. D. (1983). Development of an "age universal" I-E sca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2*, 181-187.
- Hathaway, W. L., & Pargament, T. I.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psychosocial compet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423-441.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39-49.
- Idler E. L. (1987). Religious involvement and the health of the elderly: Some hypotheses and a test. *Social Forces, 66*, 226-238.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rkpatrick, L. A. (1989).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In M. Lynn & D. Moberg (Eds.),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 (pp.1-31). Greenwich, CT: JAI Press.
- Kirkpatrick, L. A.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 attachment sty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207-217.
- Lea, G. (1982). Religion, mental health, and clinical issu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1, 336-351.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Pargament, K. (197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New York: Guilford.
- Peterson, L. R., & Roy, A. (1985).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n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49-62.
- Piedmont, R. L., & Moberg, D. O. (2003).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3*. Boston: Brill.
- Pollner, M. (1989). Divine relations,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92-104.
- Rosenstiel, A. K., & Keefe, F. J. (1983). The use of coping strategies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Relationship to patien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djustment. *Nursing Studies*, 32(5), 457-468.
- Ross, L. A. (1995). Spiritual dimension: its importance to patients' heal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and its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2(5), 457-468.
- Ryan, R. M., & Rigby, S., & King, K. (1993).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3), 586-596.
- Shin, D. C., & Johnson, D.M. (1978). A 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 Vols.). Ro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itter, R. A., Stock, W. A., Okum, W. A., & Haring, M. J. (1985). Edu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 165-173.

원고접수일: 2012년 9월 22일

게재결정일: 2012년 10월 25일

Religious Orientation, Fundamentalism, Spiritu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Religious People

Eun-Sik Jun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s, religious fundamentalism, spiritu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religious people, and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religious orientations and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on their well-being. The participants were 317 religious people who were living in Seoul and the suburb, whose age were ranged from 20 to 81 ($M=52.00$, $SD=11.16$).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I/E-R,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Emotion Frequency Test,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Subjective Happiness Scal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ligious orientation was closely correlated with spiritual well-being, and it was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of religious people. However,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with social conformity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piritu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inversely,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feeling of meaningfulness of existential well-being. Religious fundamental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s well as spiritual well-being. Yet, results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religious fundamentalism, as it was adjusted by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negative emotion and negatively to subjective happiness. Spiritual well-being, which is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was a satisfying feeling of existential well-being. Moreover, if religious well-being was adjusted by satisfying feeling of existential well-being,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interaction effects of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 religious fundamentalism on spiritu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Simple main effect analyses revealed that people with higher religious orientation showed higher spiritual well-being than those with lower religious orientation in only people with lower religious fundamentalism; whereas people with higher religious orientation showed higher subjective well-being than those with lower religious orientation in only people with higher religious fundamentalism. This finding suggests that religiosity variables with interactions could affect human well-being.

Keywords: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fundamentalism, spirituality, well-being, happiness